

몸집 키우는 道… 행정조직 개편도

도의회에 ‘102명 증원’ 정원 조례 개정안 제출
특별자치행정국 명칭 변경·일부 업무 이관 포함
도지사 보좌 인력 확대하는 규칙 개정안도 공포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 100여명을 증원하는 등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빠르면 7월말쯤 하반기 인사를 추진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안전(산업안전보건)·환경(미세먼지)·사회복지(커뮤니케어) 분야와 신규 공공시설물 개관 및 일선 행정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증원 인원은 총 102명이다. 이로써 지방공무원 정원은 6005명에서

61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670명에서 4772명으로 늘어난다.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 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의 사무 분장도 확대됐다. 기존 업무는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추진 및 특별분권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을 통한 도민의 이익실현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12일 도지

사 보좌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 정부특보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도지사의 정책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부직 인력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채용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다”며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지침 변화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했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지역 빛깔 담은 아름다운 간판 찾아요”

서귀포시, 9월 13일까지 공모

서귀포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간판 발굴을 위해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019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에는 서귀포시 관내에서 적법한 허가(신고)를 받아 제작·설치된 고정형 광고물을 대상으로 간판을 설치한 광고주(점포주)나 간판을 제작한 광고업자, 간

판 디자인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출품된 간판은 독창성, 주변 환경과 건물과의 조화, 친환경 소재 사용 여부에 대한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7~29일 개최되는 서귀포칠십리축제장에서 2차 시민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금은 대상 200만원,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2개 작품) 각 40만원, 장려상(5개 작품) 각 10만원이다.

서귀포시 김성철 도시과장은 “아름다운 간판은 단순한 상업적 수단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2018 아름다운 간판 금상 수상작인 ‘감자’.

도시경관을 향상시킨다”며 “아름다운 간판 사례를 제시하고 선진 간판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760-3023.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농업법인 운영실태 조사 제주시, 내달 1927곳 대상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1927개소이다. 조사 항목은 법인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주·

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농지 소유 현황 등이며 읍면동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고,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법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시 해수욕장 22일 개장

제주시는 물놀이를 기다리는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해 일부 해수욕장을 조기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해수욕장은 총 7곳으로 이 중 5곳(금능, 협재, 괄지, 이호, 함덕)은 22일 조기개장하며 나머지 2곳(삼양, 김녕)은 내달 1일 개장한다.

시는 해수욕장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해 민간안전요원 190명을 지정해 수욕장과 연안해역을 포함한 11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현석기자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오경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모델들이 ‘제주삼다수x카카오프렌즈 썸머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주도개발공사 제공

삼다수×카카오프렌즈 하얀 여름 ‘쿨한 만남’

여름 한정판 제품 출시

라벨 속 다양한 캐릭터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국민 생수 제주삼다수가 카카오프렌즈와 함께 하얀 여름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을 맞아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들을 활용한 ‘제주삼

다수x카카오프렌즈 썸머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삼다수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330ml 신제품을 선보였다. 국민 생수와 국민 캐릭터의 만남으로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삼다수 라벨 속 캐릭터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개발공사는 이어 생수 소비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여름을 앞두고 500ml 제품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적용해 선보였다. 이번 썸머패키지는 라이언과 프로도, 무지 등 카카

오프렌즈의 대표 캐릭터들이 제주에서 서핑을 즐기며 여름을 만끽하는 모습을 표현해 보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개발공사는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여름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500ml 삼다수에 카카오프렌즈를 더한 이번 썸머패키지를 통해 소비자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제공하며 보다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프렌즈와 함께한 제주삼다수 썸머패키지는 전국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상윤기자

미세먼지 안전 정류장… “생활 바꾸는 혁신”

서귀포시, ‘미세먼지 스톱사업’ 등 정부 공모 선정
국비 1억여원 확보… 버스정류장에 송풍기 등 설치

주민생활을 바꾸기 위한 정부 혁신 사례 공모사업에서 서귀포시가 응모한 2개 사업이 선정돼 올해 특별교부세 1억2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에 ‘청정제주 미세먼지 스톱(STOP) 사업’과 ‘에너지 자립 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이 전국에서 뽑힌 73개 사업에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공모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코자 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청정제주 미세먼지 스톱 사업’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류장 내 에어컨(송풍기)과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 각종 평가,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17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코자 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청정제주 미세먼지 스톱 사업’은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류장 내 에어컨(송풍기)과 슬라이딩 도어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 사업은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응모 자치단체 데모데이(demoday)’ 행사에서 21개의 발표사례 중 ‘심사위원과 청중 평가 결과 우수 사업 모델(총 5개 선정)’로 뽑혀 추가 사업비 특별교부세 3000만원 등 총 9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데모데이에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사업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행사다.

대정읍이 추진할 ‘에너지 자립섬 가파도로 가는 디딤돌,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지원받아 가파도에 자체 발전설비를 갖춘 태양광 LED 가로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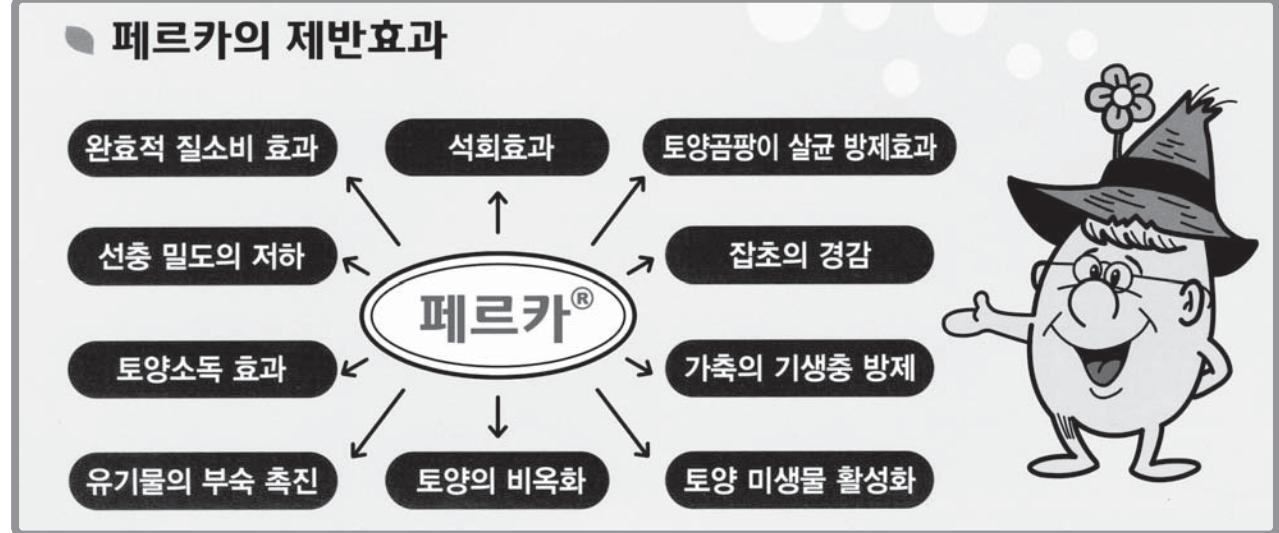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상냥개비 ◎ 꽃이 콩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낭(갑)	내피를 양낭막 또는 양낭이라 하는데 양낭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봄순이 녹화되면 첫 세균(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팜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히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갈솔(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팜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파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련 입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	-----------------------	--------------	---------------------------------------	------------------	---------------------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